

6장 신앙

?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믿는가?

계시는 주어진 뿐 아니라 받아들여져야 하므로, 사람 안에 그에 맞는 받아들이는 원리가 있어야 한다. 지성·감정·도덕에 기대는 세 방법은 저마다 진리를 담았지만 신앙의 가장 깊은 토대는 아니다. 신앙의 최종 근거는 증명이나 체험이 아니라 성령이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원 얻는 신앙은 지식·동의·신뢰를 모두 품고, 복음으로 옷 입으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령의 선물이다. 신학은 '믿음의 성찰'로서 성경 전체에서 체계를 세우되, 신비 앞에 겸손하며 경배로 끝난다.

용어 먼저

내적 인식 원리	밖에서 온 계시를 안에서 받아들이는 통로, 곧 성령과 신앙
역사적·변증적 방법	역사 증거와 이성으로 신앙을 뒷받침하려는 길
종교적·경험적 방법	거듭남의 체험에서 확신과 내용을 끌어내는 길
윤리적·심리학적 방법	도덕적 필요가 채워진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 길
성령의 내적 증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마음에 확신시키는 성령의 일
자증적 (αὐτοπίστος)	성경이 밖의 증명 없이 스스로 참됨을 보임
구원 얻는 신앙	역사 지식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구조도 · 신앙의 근거를 찾는 여정



핵심 주장

1. 지성·마음·양심은 그릇일 뿐, 믿음의 내용은 밖에서 오는 계시로 채워진다.
2. 변증은 신앙 뒤에 따라오는 것이지, 신앙을 먼저 증명으로 세우는 일이 아니다.
3. 체험은 믿음을 앞서지 않고 뒤따르며, 늘 성경으로 바로잡혀야 한다.
4. 위로가 된다고 참된 것은 아니다. 가치 판단은 사실 판단 위에 선다.
5. 믿는 이유의 첫 대답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이고, 성경은 스스로 참됨을 보인다.
6. 성령의 증언은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라 모든 시대 교회가 함께 나누는 경험이다.
7. 구원 얻는 신앙은 성령의 선물이며 동의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를 품는다.
8. 신학은 오용될 수 있어도 버릴 수 없고, 성경 전체에서 겸손히 세워져 경배로 끝난다.

성경 근거

고린도전서 2:14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의 일을 알아보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2:3	예수를 주로 고백함은 성령의 일이다
베드로전서 3:15	믿는 이는 소망의 이유를 말할 의무가 있다
이사야 8:20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다
히브리서 11:1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로마서 8:14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신다
요한일서 5:4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오해 → 바른 이해

× 증거를 충분히 쌓아야 믿을 수 있다	✓ 증거는 믿음 뒤를 따를 뿐, 근거는 성령의 증언이다
× 내 체험이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 체험은 믿음을 뒤따르며 성경으로 교정된다
× 위로가 되면 그것이 곧 참된 종교다	✓ 가치는 참됨과 다르며, 사실 위에서만 선다
× 믿음은 교리에 대한 머리의 동의다	✓ 지식·동의·신뢰를 다 품은 성령의 선물이다

“믿음의 뿌리는 증명도 체험도 아닌 성령이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 나는 의심이 올 때 증거를 찾는가, 말씀 앞에 서는가?

☺ 내 믿음은 머리의 동의에 머무는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가?

빛다방 학습 노트 ·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요약한 것입니다(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
[youtube.com/@빛다방](https://www.youtube.com/@빛다방)